



관련기사 2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안산
젊은 청년들의 환한 웃음으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02

자전거 친화 도시 안산

스마트폰으로 빌리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공영 자전거 페달로

03

안산의 자부심②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 최수연 금메달... 유도 정보경 금메달,
권유정 · 정혜진 단체전 동메달,
2018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

08

김선철 문화관광해설사

대남초등학교 교장 출신으로 대부도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그의 사연을 소개한다.

09

안산스마트허브 기업탐방①

일신화학공업(주) 정철수 대표이사
“50년 이어온 ‘정직’과 ‘신용’ 농업용 필름
1등 기업의 힘”

12·13

2018년 가을, 미술로 물드는 안산

김홍도 축제를 비롯해 가을에 즐길 수 있는
미술의 대향연을 소개한다.

2018 안산

김홍도축제

10.12.(금) - 10.14.(일) 11:00 - 18:00

화랑유원지

“김홍도와 함께하는
안산 힐링여행”

기획행사 김홍도 풍속 재현, 김홍도 마당극, 씨름 마당
시립국악단 · 대북&삼고무 · 동춘서커소 · 전통예술공연

체험행사 장터마당, 농업마당, 놀이마당, 교육마당 등 30여 개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김홍도 사생대회 문의 안산시학원연합회 T. 405-0046
도전! 김홍도 골든벨 문의 안산청년회의소 T. 480-2341
프리마켓, 동상마임, 한복 및 세계의상 체험, 푸드트럭



‘자전거 천국 도시’를 이끄는 ‘페달로’ 업그레이드 “이제 스마트폰으로 빌리고 결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요”



안산시는 ‘타고 싶은 자전거 친화도시’를 위해 기존의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 거치대)’이 필요 없는 공영 공유자전거(S-페달로)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3년 5월 공공 자전거인 페달로를 도입해 현재 정류장 101곳과 자전거 2천314대를 운영 중이다. 자전거는 기어 7단, 전조등과 안전등, 빗물받이 등을 갖추고 있어 고급형 자전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또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어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빌린 후 버스나 전철로 환승을 하거나 중심가로 가기에 무리가 없다. 비용은 하루 1천 원, 월 4

천 원, 육개월 2만 원, 일 년 3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2016년 12월 기준 7만5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누적 이용량은 167만5천564대를 기록, 하루 평균 4천5백대 가량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기존 페달로에 안주하지 않고 S-페달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S-페달로는 기존 페달로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키오스크(무인 안내시스템)와 거치대 장치가 필요 없는 발전된 공공자전거 시스템이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여나 결제가 가능하며, 자전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도 쉽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250대의 S-페달로를 구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공영 공유자전거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민영 공유자전거와 비교해봐야 한다.”며 “유지관리나 이윤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후 안산시 공유자전거 사업의 주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 지자체에서 S-페달로와 유사한 민영 공유자전거를 경험한 이재훈(28) 씨는 “반납할 때 다시 정거장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진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페달로 고객센터(1544-6339)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안산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에 적극 나서 주파수 · 렌즈 탐지기 구입, 민관합동 점검조 ‘가동’



안산시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믿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공서, 공공시설 등 공중화장실 542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파수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가 세트로 구성된 장비 32개를 구입했으며, 공무원, 경찰, 유관기관 및 단체, 로보캡순찰대, 안전보안관, 민간수질감시단과 시민참여단으로 민관합동 점검조를 꾸렸다. 점검조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활동과 동시에 화장실에 경고성 스티커를 붙이고, 화장실 외부에는 안내판을 부착해 범죄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7일에는 안산상록·단원경찰서, 안산시 시민서포터즈 촌충안전망,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가톨릭여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 상담소 소속 15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사동 의류 상설할인매장 주변과 주유소, 병원 등 15곳을 점검했다.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모춘섭 계장은 “스티커는 용의자에게 경고의 의미로 붙이는 것이므로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게 좋다. 화장실 입구에서 스티커를 보고 되돌아나간다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효율적인 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휴지통과 휴지걸이, 청소도구 등을 살피며 탐지기를 대보는 점검 요원들은 매의 눈으로 의

심스러운 곳을 스캔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가톨릭여성상담소 강진화 씨는 “매월 가정폭력 추방 예방 캠페인을 여는데 오늘은 시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한다니 의미가 깊어 참여하게 됐다. 실제 현장이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길 바란다.”며 상기된 얼굴로 점검에 나섰다.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은 관공서와 산하기관 공중화장실 180개소는 자체 점검하며, 민간 기관과 점포 등의 공중화장실 362개소는 점검조가 현장점검을 한다. 외식업소 및 숙박업소 내 민간화장실은 탐지장비를 대여,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은 자체 장비로 점검을 독려한다.

1차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적발된 공중화장실은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09)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안산시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협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시 2018. 9. 27.(목) 16:00 ~ 18:00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
내용 안산시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발표 및 시민 의견수렴

주최 안산시 **주관** 안산시 협치 활성화 TF **좌장**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

문의 안산시 미래전략관 시민소통팀 ☎481-3402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구슬 땀, 열정!

2018. 9. 5.(수) 시청 대회

안산의 자부심 시리즈 ②



“살아서 거주하는 곳은 안산이 최고(生居最設安山如)”라고 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말이다. 그만큼 천년고도(千年古都) 안산은 ‘살기 좋은’ 지역이다. 지명에 ‘편안할 안(安)’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하기도 했으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역사나 문화재, 인물들을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아시아를 제패하다



유도 3명 펜싱 2명 등 국가대표 5명, 2018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 펜싱 최수연 금메달... 유도 정보경 금메달, 권유정·정혜진 단체전 동메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진행된 제18회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금메달 두 개와 동메달 한 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재 안산시청 소속이며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유도의 정보경(-48kg급), 권유정(-57kg급), 정혜진(-70kg급) 선수까지 세 명과 펜싱의 최수연(사브르), 김지영(사브르) 선수 두 명으로, 총 다섯 명이 안산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펜싱 최수연, 첫 아시안 게임 출전에서 금메달 ‘영예’

첫 번째 메달 소식을 알린 선수는 펜싱의 최수연이었다. 여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한 최수연 선수는 부전승으로 16강에 오른 후 이란과 일본을 잇달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해 중국과의 한판 승부를 펼쳤다. 8월 22일이었다. 거세게 추격하는 중국과 접전을 펼쳤던 경기에서 3라운드 1번 주자였던 최수연 선수가 5-1의 스코어를 올리는 결정적인 활약으로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013년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한 최 선수는 이후 꾸준히 경기력을 향상시킨 후 2015년부터 사브르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최수연 선수는 수상식에서 “이번이 개인 첫 아시안 게임 출전인데 금메달까지 따서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한편, 최수연 선수는 9월 11일 안산의 자생한방병원에 검을 기증했으며, 이에 대해 이현수 감독은 “선수단에게 우수한 의료시설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도 정보경, 2016리우올림픽 한국 첫 메달에 이어 이번엔 ‘금’

펜싱 최수연의 금메달 소식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의 승전보

를 올린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안겨줬던 여자 유도의 간판 정보경 선수였다. 정 선수는 8월 29일 진행된 여자 유도 -48kg급에서 숙적 일본과의 접전 끝에 업어치기 절반으로 승리를 따냈다.

정보경은 16강과 8강 경기에서 호앙티틴(베트남)과 시용야오(중국) 선수에게 빗당겨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고, 이어 세계랭킹 1위인 몽골의 우란체체그 선수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안뒤축걸기 기술을 성공시켜 결승전에 진출했다.

금메달을 놓고 벌인 한판 승부의 상대는 일본의 곤도아미 선수였다. 결승전에서 정보경 선수는 곤도아미에게 팔걸기 기술에 걸려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업어치기로 절반을 획득하며 정상에 올랐다.

정보경 선수는 2014년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간판스타다. 정 선수는 시상식을 통해 “올림픽 때 못 땀 금메달을 꼭 따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킬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혼성6인조 단체전에 출전한 권유정, 정혜진 선수도 동메달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만(16강), 일본(8강)을

잇달아 꺾었지만 몽골과의 경기에서 몰수 패를 당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0 대 4로 크게

이기며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승전보를 시민들에게 전해 준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와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산시청 소속 선수들의 좋은 결과가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개 종목 66명의 지도자와 선수들, 안산의 명예를 높이다

현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감독 이영숙), 탁구(감독 이재훈), 씨름(감독 조경덕), 유도(감독 이용호), 펜싱(감독 이현수), 태권도(감독 김찬구) 여섯 종목의 선수단이 구성돼 있으며, 53명의 선수들을 13명의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다. 지난 1986년에 창단한 육상부가 최초며 이어 1989년에 탁구부가 만들어졌다. 씨름과 유도, 펜싱은 2005년에 창단됐고 태권도가 10년 전인 2008년에 깃발을 올렸다.

특히, 안산시의 태동과 함께 출범한 육상부는 우리나라 여자 100미터 기록보유자인 이영숙 감독의 지도 아래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다른 종목들도 뛰어난 성적들을 거두고 있다. 최근 씨름부의 최희화 선수는 구례전국 여자장사 씨름대회에서 무궁화급과 전국여자장사 우승을 차지했고, 태권도부의 박은아(-46kg)·최수지(-49kg) 선수는 국방부장관기대회에서 우승했다. 또한 최근 열린 2018추계 회장기실업탁구대회에서 이소봉·곽수지 선수는 여자개인복식, 문현정 선수는 여자개인단식에서 우승했고, 남자부 단체전과 여자부 단체전 우승도 차지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9)



안산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역의 문제점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안산시가 오는 9월부터 도시 재생에 관심 있는 지역 내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안산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기본, 심화, 활동가 양성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되며, 총 여섯 번의 강의와 현장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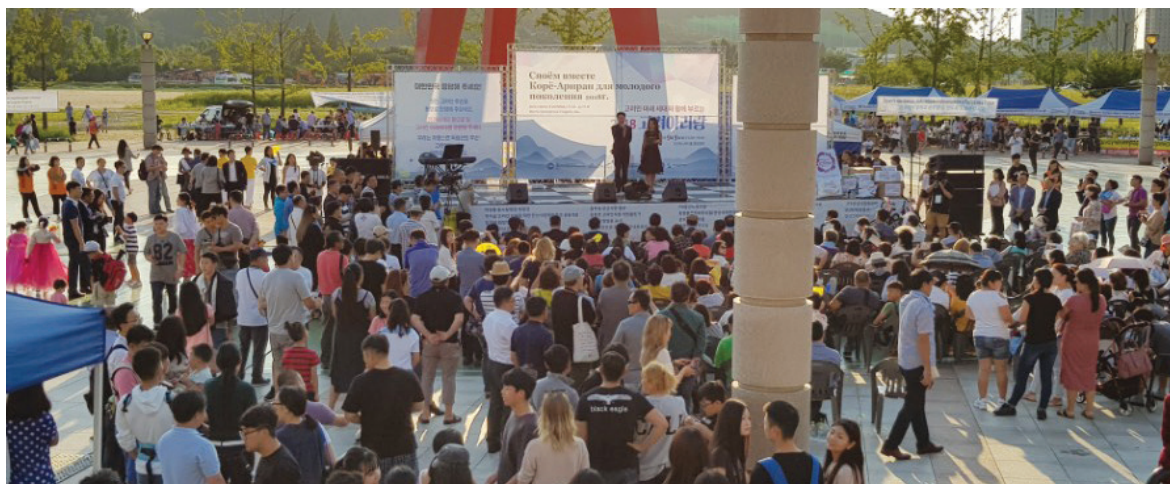
심화과정은 5개 팀(팀별 10명 내외)으로 구성하며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된다. 다문화·주거복지·연립주택·산업단지·사회적경제 등 팀 구성 후 주제에 따라 과정이 진행된다.

활동가 양성과정은 1팀(10명 내외)으로 구성하며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된다. 도시재생 우수 해외사례·협치와 중간지원조직 등 6회 차 강의로 구성되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경험자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추천자를 우선 선발한다.

◇ 문의 : 안산시 도시재생과(031-481-392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이번 교육과정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참가자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산시 도시재생전략에 필요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대학의 기본과정은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려인 미래 세대와 함께 부르는 ‘2018 고려아리랑’ 고려인 4세의 동포 자격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1937년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20여만 명의 한민족은 당시 일본과 긴장 관계를 피하려는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서 6천 5백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연해주 강제 이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러시아 지역 한민족 3대 비극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일제의 핍박을 피해 고국을 떠났던 한인들은 맨손으로 논밭을 일구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독립투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40일 가까이 기차 화물칸에서 극심한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내던져진 한인 상당수가 굶주림과 추위, 질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땅을 일구고 학교를 세워 마을을 일으켰다.

국내 거주 고려인을 대표하는 전국고려인네트워크는 9월 9일(일) 오후 3시 고려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와 안산 시고려인문화센터, 인천고려인문화원의 공동 주최로 전국고려인협회 출범 선포와 고려인 4세의 동포 자격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고려인 미래세대와 함께 부르는 2018고려아리랑’을 개최했다. 와스타디움 중앙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고려인 4세들을 동포로 인정하여 국내 체류 자격을 줌으로써 가족 간의 생이별을 막아달라”

는 법률 개정 청원과 문화공연, 바자회, 고려인문화체험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또, 전국고려인협회 선포식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고려인 대표들이 뜻을 모아 명실상부한 전국적 자치 조직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전국고려인협회 노 알렉산드르는 “1911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홍범도, 신채호 선생들이 만들었던 최초의 고려인 자치 조직인 권업회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독립운동 후손으로서 고려인의 명예를 드높여 법적 지위 보장, 복리 증진, 상호부조 같은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려인 4세의 동포 자격 인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는 한 청년은 “열악한 고려인의 처우개선이 시급하고, 특히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동포 자격 인정은 우리사회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K리그 2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산그리너스FC는 9월 9일을 ‘고려인의 날’로 정하고 저녁 7시 와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광주FC의 경기에 고려인을 초대해 시축 행사를 진행했다.

◇ 문의 : (사)너머(031-493-7053)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단원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적극적인 홍보로 환급 추진

안산시 단원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7,427건 2억9천2백만원의 미환급금이 남아 있으며, 이 중 1만 원 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 누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금 여부는 위택스(wetax.go.kr)나 ARS지방세환급 자동안내(1588-6128)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 문의 : 단원구 세무1과(031-481-6121)

농수산물도매시장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 제공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체험하며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을 11월까지 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6~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로 1회당 1팀(20명 이내)으로 구성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체험프로그램은 도매시장 견학, 장보기 체험, 농수산물 이름 맞추기, 농산물 보물찾기로 구성된다. 또한 체험학습 후에는 제철과일을 시식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향후 진행되는 체험학습은 시청 및 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체험일자 및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031-481-3806)

‘제13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위트와 감성이 넘치는 유쾌한 아이로 키우기

안산시는 오는 10월 10일 단원구청 2층 단원홀에서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음악과 함께하는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벨라르페 컴퍼니’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그맨이면서 샌드아티스트, 서양화가인 임혁필 강사를 초청해 ‘우리아이! 위트와 감성이 넘치는 유쾌한 아이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초저출산 시대의 우리아이들에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삶에 긍정적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훌륭한 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단원보건소(☎481-2552,2564) 또는 상록수보건소(☎481-5975~8)로 전화 또는 방문해 선착순(200명)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산도서관 개관 25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마련

단원 김홍도 그림 속 전통복식 재현 패션쇼, 색다른 즐거움 선사

개관 25주년을 맞은 관산도서관(단원구 관산길 29 · 원곡동)이 전통복식 패션쇼, 독서 골든벨, 인문학 강연-‘한복에 대하여’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9월 15일 관산도서관은 작은 잔치를 열어 25년 역사를 담은 동영상 상영하고 안산시립국악단의 공연과 함께 축하 떡을 나눴다. 관산도서관은 안산이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작은 마을에서 거대 산업도시로 변모할 때 처음 세워진 도서관이다. 그동안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지역주민의 지식창고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그때그때 다양한 공연, 강좌 등을 마련해 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인문학 대중화 거점 도서관으로서 ‘역사를 입다(衣), 먹다(食), 살다(住)’를 주제로 10월까지 다양한 강연과 강좌를 계획했다.

‘역사를 입다(衣)’ 부문은 단원 김홍도 그림 속 전통복식을 재현하는 패션쇼로 펼쳐졌다. 전국 최초로 지어진 한옥양식 1층 어린이자료실이 무대가 됐다. 2018년 한복 부문 명장에 선



정된 이윤숙(단원구 고잔동) 씨가 전통복식 복원을 맡았고, 문화콘텐츠 기획가 황현모 감독이 연출했다. 모델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18명(어린이 5명 포함)과 17명의 전문모델이 함께했다. 재현된 그림은 김홍도의 ‘서당’ ‘주막’ ‘신행’ ‘그림감상’ ‘기와의기’ ‘타작’ ‘화성능행도’ 등 이었다.

패션쇼에 참가한 이준규(62 · 양상동) 씨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면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는 장소를 넘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제공해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3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독서 골든벨도

진행됐으며, 한복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과 다도체험, 가훈 써주기, 도서교환전 등도 진행됐다. 정순미 관장은 “관산도서관이 지역주민 여러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관산도서관(031-481-3853) /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차별화 · 전문화로 성공 노하우 키워요”

안산시 외식사업 아카데미, 외식업 경영주 · 예비 창업자 돕는다



학습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차별화 · 전문화 교육으로 성공 노하우를 전하는 ‘안산시 외식사업 아카데미 2기’가 9월 6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이하 한호전)에서 입교식을 갖고 시작했다.

한호전의 함동철 학장은 ‘외식산업을 이해하면 돈이 보인다’는 주제로 첫 강연을 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에서 경제가 어렵고 인력난에 인건비 상승까지 3종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기업이 정신이 필요하다.”며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정간편식(HMR)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어,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카데미는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주와 두려움이 많은 창업자를 위한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록구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산지부가 주관한다. 한호전이 수업을 맡아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 씩 12주 과정을 진행한다. 수업은 안산의 음식점 경영주와 예비창업자 40명을 대상으로 ‘외식업 마케팅’, ‘매입 · 매출 세무 관리와 인사 · 노무 관리’, ‘수료생이 전하는 점포 운영 성공사례’, ‘외식사업 성공 노하우’ ‘성공점포 현장탐방’, ‘소스 · 드레싱 트렌드 따라잡기’, ‘뜨는 메뉴 배우기’ 등 이론과 실무를 겸한 경영마인드 전문교육으로 구성됐다.

입교식에 참석한 이태석 상록구청장은 “12개 강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외식업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과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성공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외식사업 아카데미는 2006년 시작돼 현재 수료생이 1천여 명에 이르고 전국의 지자체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모범사업이다.

◇ 문의 :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031-481-5234),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031-480-655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도자기, 시계, 등산화 등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

상록구청, 개성공단물품 우수상품 판매전 ‘성황’



지난 4월 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며 그 동안 남측의 123개 기업체가 1조 5천억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아픈 사실도 엄존한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재조명 되는 가운데, 안산시민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지난 8월 23일(목), 24일(금) 이틀 동안 상록구청 로비에서는 ‘개성공단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이 진행됐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경기도가 주최하고 안산의 통일 관련 단체인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통일의병경기서부, 6.15안산본부가 함께했다.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은 모두 개성공단에 입주 · 생산했던 기업들로 주방용품 ‘석촌 도자기’, 시계를 제조하는 ‘로만손’, 등산화를 판매하는 ‘알디 앤 웨이’ 등 7개 업체였다. 아동용 내의, 가죽지갑 및 가방, 양말, 시계, 자기류, 운동화, 등산화 등을 전시 · 판매했다.

시민특강도 진행됐다. ‘너무 쉬운 통일, 행복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개성공단의 전망과 남북경협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직접 참여해 물품을 구매한 한 시민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참여해봤다”며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다시 생길 만큼 경제교류가 활발해져서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겨레평화통일포럼 관계자는 “그 동안 안산 지역에서 통일교육사업, 통일정책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올해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해 남북경제교류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 문의 :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031-413-0615)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2018 안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생생도시 안산! 글로벌 학습바람이 분다!



‘2018 안산시 평생학습 한마당(이하 평생학습 한마당)’이 오는 10월 6일 안산문화광장 일원에서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18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선정’에 발맞춰 안산시가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선포식을 갖고 유네스코의 이념과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안산문화광장 내 갤러리광장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 기획 부스가 운영된다. ‘구석구석 평생학습존’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평생학습마을과 카페,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소개한다. ‘움직이는 샘골강습소존’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이다. 건강문해교육(안산용신학교), 캘리그래피 엽서쓰기·자음받아쓰기(안산시평생학습관), 진단평가 및 상담·문해교육기관 홍보(초지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마련했다. 또한 안산시 문해백일장 시화전 작품 55점도 전시한다.

‘러닝&런닝존’은 안산시평생학습관, 여성비전센터 등 안산시 평생교육기관의 홍보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학습도시 가입 인증서를 배경으로 즉석 사진 찍기 이벤트도 마련된다.

체험부스 외 숲의 광장에서는 학습동아리 활동 성과에 대해 알리며, 생생한 스트리트 공연으로 중창, 우크렐레, 난타, 색소폰, 통기타 공연도 즐길 수 있다.

한편, 제8회 도서관 책 문화 축제가 안산문화광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책 축제와 연계된 평생학습 마당은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와 흥겨운 공연 등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8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에 살아보니... 알고 있던 이미지와 달랐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특히 공원이 잘 조성돼”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학생들에게 안산의 이미지에 대해 물었다.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그동안 안산은 외부의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지만 이는 대부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평가다.

현재는 생태도시로 변모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새로운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시화호는 1997년 복원작업을 시작해 현재는 가물치, 잉어, 붕어, 송어 등 물고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등 180종이 넘는 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완벽하게 복원됐다. 또한 시화호 인근에서는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도 많이 좋아졌다. 현재 안산시 인구는 올 8월말 기준으로 71만6천374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5만5천61명으로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75개국에서 온 다양한 외국인들이 원곡동을 다문화거리로 조성했고, 안산시는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플랫폼을 내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B광역시에서 온 전현영(한양대 산업경영공학과·4학년) 학생은 “안산의 공유자전거인 페달로를 가끔 이용하는데 자전거도로가 넓고 많아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곳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온 유민지(한양대 문화인류학과·2학년) 학생도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안산을 방문했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특히 다른 도시보다 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 같다.”며 도시 숲이 많은 안산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 ◆ 정치인(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위반 사례

-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 결혼식에서의 주례
- **구호·의연금품 제공** - 구호기관 등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식사·다과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의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무료민원상담 등**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무료 상담,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로만 받고 지식 등 제공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은 익명으로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상의 가치 있는 기술을 모으는 소셜 벤처기업 '세모'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디지털로 행복한 세상을!



수백억 개가 넘는 센서들의 네트워크 즉,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인류의 생활을 바꾸고 있다. 사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고, 듣고, 말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진화는 일상 생활부터 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보관된 내용물을 확인하며 영양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기술을 갖고 닦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편리하게 하거나 감동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 여기에 착한 일자리와 좋은 부가가치 창출까지.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디지털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셜 벤처기업 '세모'의 신유철 대표(36세)를 만났다.

'세모'는 사물 인터넷, 정보산업(IT)을 기반으로 한 기술관련 비즈니스와 컨트롤 샵(기기를

제어장치에 연결하고 연동된 앱을 통해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복합 솔루션), 터치 페이(무인 결제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 대표는 '세상의 가치 있는 기술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가치 실현을 위해 2017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뒤 법인 '세모'를 설립,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지를 틀었다.

신 대표는 "스마트한 세상이 펼쳐졌지만 4차 산업혁명과 정보산업기술에 취약한 사람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오히려 난감하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무인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코인노래방, 인형뽑기방, 빨래방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에게 AS 등 교육을 실시, 실업자를 채용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세모는 전원 제어, 기기 제어, 조명 제어, 출입 통제, 셀프 방법, 온도 제어 등이 가능한 멀티 솔루션인 컨트롤 샵을 제공하며, 소규모 소상공인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도 공급한다. 또한 대장의 신호를 인식해 스마트폰으로 미리 알려주는 배변 센서 등 노인이나 장애인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물 인터넷도 구상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솔루션도 기획하고 있다.

신 대표는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은 커질 것이다. 그 안에서 착한 일자리와 좋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보다 저렴하고 보편성 있는 디지털 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디지털 적정 기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세상이 즐거워지도록 하는 디지털 사회 혁신(DSI)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문의 : 세모(070-8230-9770)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션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메시지가 담긴 '생명의 빛'을 전하는 '빛과예술로'

빛으로 예술을 밝히며 더 나은 세상 만들고파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셉테드(CPTED)'가 진화하고 있다. 셉테드란 도시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심리를 줄이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 기법으로 공원, 놀이터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 가시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에 벽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골목길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 심리를 줄이는 도시환경 사업을 말한다. 셉테드 기법이 적용된 '로고젝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로고젝터

는 로고(Logo)와 프로젝터(Projector)의 합성어로, 이미지글라스(유리렌즈)에 빛을 비춰 벽면이나 바닥, 천장 등 다양한 장소에 원하는 이미지와 문자를 투영하는 신개념 LED 홍보 장치다.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입주해 있는 (주)빛과예술로(대표 김광용)는 이러한 감성 가로등 로고젝터 기법으로 서울 마포와 신촌의 좁고 지저분한 골목을 갤러리로 변화시켰다.

'빛과예술로'는 창조적인 문화예술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광용 대표는 "20년 넘도록 어두웠던 골목길이 피카소, 고흐의 작품으로 환하게 밝혀지니 쓰레기도 좋고 깨끗해졌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깁니다. 주기적으로 작품이 바뀌면 내 가 사는 골목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갤러리로 변신하는 거죠."라며 미소를 지었다.

지역축제에서 빛 전시를 기획하고, 아티스트 조명으로 '우리마을 불 밝히기' 프로젝트를 펼치며 도시재생을 꿈꾸는 김 대표는 밤이 되면 시간이 멈춘 듯한 안산의 산업단지를 빛과 예술로 환하게 밝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관을 운영했던 가족들 덕분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진기술을 습득해 '꼬마 사진기사'로 불렸다는 김 대표는 인간문화재, 사적지 등 한국의 10대 전통문화를 카메라에 담는 작가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04 아테네올림픽 기간에 한국 대표로 전시를 한 경력의 소유자다.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의 유물자료 등 30만 컷 이상의 이미지들을 소장하고 있는 김 작가는 "이 작품들을 공단에 시대별로 빛 갤러리 전시를 하면 공간 전체가 전시관을 넘어 박물관이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빛 갤러리 전시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명작은 물론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개인 전도 가능하다. 그는 "지역예술가의 빛 갤러리 전시가 전국투어를 하며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아 메시지가 담긴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가 닿기 바란다"며 포부를 밝혔다.

◇ 문의 : (주)빛과예술로(010-5340-281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 취약계층 노동조건 실태 조사 근로기준법 준수 프랜차이즈 39.4%… 소폭 상승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지난 4~6월까지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 분석과 상반기 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안산시 관련 부서, 안산시의회,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노동인권 보호협약 본사인 (주)BGF리테일, (주)GS리테일, (주)롯데지알에스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활동 4년차를 맞이하는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해 단시간노동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장 830곳과 안산지역 소재 아파트 114곳을 전수 조사했다. 또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는 불법파견 노동 실태를 알리고 해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파견업체 구직 활동과 거리 조사 등도 조사했다.

1차 조사결과 프랜차이즈 사업장 643개 업체 중 39.4%인 250개 사업장이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60.6%인 385개 사업장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 4년의 위반율을 살펴보면 73.1%, 74.5%(16년), 67.5%(17년), 60.6%(18년)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48.7%로 가장 높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32.0%, 최저임금 위반이 10.4%로 나타났으며

사업주에 의한 폭언폭력 등 인격적 대우 위반 비율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편의점의 위반율(74.01%)이 가장 높았으며 제과·제빵점 54.7%, 커피전문점 35.1%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90.7%로 상대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주휴수당의 경우 2015~18년 준수율이 들쭉날쭉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재철 센터장은 “편의점 업종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직접적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이지만 대기업 본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안산시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과 2018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기준법 위반현황을 비교하면 모두 준수한 아파트가 2017년에 비해 16.6% 증가한 20.4%로 나타났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2017년 12.5% 대비 14.2%가 증가한 26.7%로 크게 개선됐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대량해고 등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주장되어 왔지만, 안산시 아파트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경비노동자의 경우 휴게 시간 사용을 늘려 임금인상액을 보전한 결과로 보인다”고 담당자는 설명했다.

한편,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제조업 불법파견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는 실질적인 불법파견 사용업체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팀과 취업팀 2개의 팀으로 활동영역을 정하고 원곡동 일대와 중앙동, 상록수역 인근, 고잔동 소재 파견업체 120곳을 방문했다. 2주의 조사기간 동안 불법파견 의심 사용업체 18개소를 찾아냈으며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는 상반기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하반기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개선활동을 펼치고 노동자와 사업주,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근로기준법 홍보와 노동인권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이름을 알고 나면 소중해집니다”

대부도의 매력을 전하는 김선철 문화관광해설사



대부도에는 학년마다 한 학급뿐인, 그나마도 교실에는 열 명이 채 안 되는 학생들이 웅기중기 앉아 수업을 받는 아기자기한 초등학교가 있다. 운동장 앞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 펼쳐져 있고, 가을이 되면 군락을 이룬 염생 식물이 단풍이 들 듯 빨갛게 익는 곳이다. 2005년 9월 대남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부도의 매력에 푹 빠진 김선철 교장은 퇴직한 후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대부도를 알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됐다. 부임 이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해 김 교장은 2006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 학교 앞 공유수면에 전용허가를 받아 염전 체험장을 만들어 방과 후 활동 등으로 활용했다. 김 교장은 지난 2012년 퇴직했다.

“대부도 갯벌은 100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 자원의 보고다. 육지에 살다가 살아 움직이는 서해 갯벌의 무한한 생명력에 반해 이곳에 남게 되었다”며 염전을 소개한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둔 1증발지의 물은 염도 3~6도, 2·3증발지에서 7~14도, 4증발지에 이르면 15~18도가 된다. 마지막 결정지의 25~27도의 함수(수분을 함유)를 염막 안의 평평한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피면 자연이 생성된다. 김선철 해설사는 “대부도 염전의 자연은 비금도 소금보다 짜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 함량이 3배나 많지만 대부도 주민들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아쉬워한다.

염전체험 후 갯벌에 나가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와 염낭게, 달랑게가 집 속으로 몸을 감추고, 아이들은 집 모양을 보고 집주인을 알아맞히며 갯벌을 탐사한다.

대남초 앞에서 고랫부리 갯벌로 이어지는 7km 구간은 2017년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갯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칠면초, 해홍나물, 방석나물, 나문재와 함초가 붉게 물드는 갯벌을 바라보며 김선철 해설사는 “갯벌은 자연이 스스로 가꾸는 자연 체험장이다. 이름을 몰라 훼손시키기는 경우가 많다. 이름을 알고 그 소중한 가치를 배우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좋은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일신화학공업(주) 정철수 대표이사

“50년 이어온 ‘정직’과 ‘신용’ 농업용 필름 1등 기업의 힘”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는 안산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주기업의 영세화·소기업화 등의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성장해 온 기업이 있다. 농업·산업·광학용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4년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고, 201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일신화학공업(주). 지난해가 창립 50주년이었다. 정철수 대표이사를 만났다.

Q 일신화학은 단일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로는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지난해 창업 50주년을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일신화학은 1967년 창업 이래 국내 녹색혁명에 이어 비닐하우스 '백색혁명'을 선도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용 필름 연구와 생산에 독보적인 역할을 했고, 1990년대 들어서 산업용 포장용 필름, 축산용 곤포 사일리지 필름에 이어 2000년대에는 전자재료용 보호필름 영역까지 확장하여 종합 폴리올레핀(PO) 필름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Q 성공적 기업운동을 위한 중요한 가치나 비전이 있다면.

일신화학의 창업주부터 50년 동안 이어온 기업이념은 '정직'과 '신용'이다. '오일쇼크'로 인해 원재료가 부족했던 1970년대에도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주 고객인 농가에서 '학표(일신화학의 상표)를 선택하면 고소독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예를 들어 당시 농업용 비닐의 경우 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닐의 두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생산했고, 우리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로부터 제품의 질을 인정받았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40여 년째 동일업종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연구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해온 것을 들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낸 것이 1등을 유지해 온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항상 우리의 성장이 고객의 발전과 함께 되어야 한다는 '상생의 정신'이 '정직'과 '신용'이라는 이념에 녹아 있으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신화학의 비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Q 농업용 필름, 공업용 필름 등 생산 품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폴리올레핀(PO) 필름이 주된 생산품이다. 농업용 필름이 60% 정도며 그 외 산업용 필름이나 광학용·전자재료용 필름도 생산한다. 중요한 점은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



우리산업을 이끄는
안산스마트허브①

들을 직접 연구하고 개발해서 '국산화'했다는 것이다.

주요 품목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직접 연구·개발한 농업용 필름으로 비닐하우스 제작에 쓰이는 '솔라이트 필름', '다이아스타 필름' 등이 있고 목초용 사일리지(사료) 포장용 랩 '소머기'라는 제품도 있다.

Q 지속적으로 농민들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 회사가 지난 50년 동안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지역사회와 고객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 덕분에 일신화학의 현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이 책임을 다해나갈 때,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Q 최근 농촌진흥청과 함께 북한 이탈 농업인들에게 하우스용 비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농업기술 지원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농업에서 플라스틱 필름(비닐)은 가장 기초적인 소재이자 초보가 되는 기술이다. 우리 남한의 농업용 필름 시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만일 북한 시장이 열리고 교류협력의 시대를 넘어 경제개발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의 제품, 우리의 기술이 꼭 필요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제품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싶었고, 북한에 대한 지원활동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 농업 협력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남북 또는 북미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길이 열리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오고 경제교류가 열릴 경우,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농업용 필름으로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시범기지'를 북한 지역 곳곳에 건설하는 일을 남한 정부와 보조를 맞춰 진행해 보고 싶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통일대비 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Q 브라보안산을 통해 일신화학을 접하게 될 안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신화학은 1989년 반월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안산시민과 함께 숨 쉬며 발전해왔다. 그 동안 안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며, 이를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문의 : 일신화학공업(주) 031-492-267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착한가게 시리즈-㉓



동산떡집

“시골에서 쑥을 캐고 삶아 한 해 재료를 직접 준비”



예부터 추석을 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다. 햇곡식과 햇과일로 차린 풍성한 음식과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이를 즐기던 풍요로운 추석명절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시대가 변해 예전 같진 않아도 여전히 명절을 앞둔 방앗간의 모습은 분주하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개할 안산착한가게는 사이동 시곡초등학교 인근의 동산떡집이다.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같은 자리에서 19년째 동산떡집을 운

영하고 있는 김석준(50) 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있어 정신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예전만 못해도 어르신들이 명절 준비 하시는 모습은 같아서 덩달아 우리도 분주하다. 지금은 고춧가루 빵기와 추석에 빚을 송편 재료 주문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떡집을 운영하다보니 어느 집 자녀가 결혼을 하는지, 그 자녀가 어느새 또 아이를 낳고 첫 돌을 맞았는지 등 마을의 슬픈 일 좋은 일을 함께 챙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세월도 간다. 김석준 사장은 “20년 전만해도 하이힐을 신고 한껏 멋쟁이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딸 결혼식을 위해 수수팥단지를 해가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손녀를 안고 와서는 백일이라고 다시 수수팥단지를 해달라고 하신다. 동네 분들과 우리 떡집이 그렇게 세월을 함께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묘하다.”고 말했다.

동산떡집만의 특별함을 한 가지 더한다면, 매년 봄이면 부부가 같이 친척들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 야산과 밭에서 쑥을 캐고 삶아서 한 해 동안 사용 할 재료를 직접 준비한다는

것과 처가 맥 8남매 중 본인을 포함 일곱 남매가 떡집을 운영한다는 것. “함께해서 든든하고 가족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김석준 사장이다.

동산떡집의 착한품목은 가래떡(1말 4만원)과 인절미(1말 7만원)다. 주차는 상가에 가능하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4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동산떡집

주소 : 상록구 감골1로 43 중심상가 108호

전화 : 031)418-5488

영업 : 오전 4시~저녁 8시



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 ‘브릿지 상담센터’ 개소

“지역주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

‘사랑과 전문성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브릿지 상담센터’가 9월 15일 개소했다. 안산제일교회 교육관을 리모델링해 ‘별별작은도서관’과 ‘브릿지 상담센터’를 갖추고 ‘브릿지센터(센터장 허요환)’로 재개관한 것.

허요환 센터장은 “1년여의 노력 끝에 안산시민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아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마련했다.”며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힘한 세상의 다리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2층 브릿지 상담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다녀갈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문턱을 낮췄고, 개인 · 집단 · 부부 상담과 진로 상담, 중독 · 비행 상담, 정신질환 상담 등 전반적인 심리 상담을 한다.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 후 전문가와 면담을 거쳐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치료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전문성을 위해 연세대 상담코칭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었으며, 상담코칭, 청소년학 교수 등 자문위원과 석 · 박사급 전문 심리상담가들이 미술 · 음악 · 놀이, 모래놀이, 원예, 동물매개 치료 등 심리 치료와 감각통합, 인지, 언어, 응용행동분석 등 특수 치료까지 시행한다.

연세대 상담코칭학과 권수영 교수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에 몸부림치는 현대인에게 마을의 센터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브릿지 상담센터는 심리상담 이외에도 부모교육, 코칭, 발달교육, 각종 장애교육, 학습상담, 진로 · 학업교육 등을 운영하며, 연세대의 좋은 자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좌 ‘브릿지 아카데미’도 열 계획이다.

브릿지 상담센터 강태신 본부장은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내담자와 치료자가 상호



작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유와 상담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는 센터를 만들겠다.”며 “장애인을 위한 감각통합실을 갖추었고 다문화 가정교육과 상담을 위해 교회의 사회복지기관 내 다문화센터 인력풀도 구성했다. 안산시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한 19개국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아이부터 어르신, 치매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상담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에는 상담신청만 받는다.

◇ 문의 : 브릿지 상담센터(031-401-3351)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경기도미술관 대표 소장품을 만나다

‘지모마(GMoMA) 컬렉션 하이라이트’展, 11월 25일까지



임민욱의 '포터블 키퍼'

경기도미술관이 지난 12년 동안의 대표 소장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 ‘지모마(GMoMA) 컬렉션 하이라이트’를 마련했다. 경기도미술관은 2006년 개관 이래 최근까지 총 559점의 작품을 수집해왔다. 1970~80년대 한국 현대 미술사를 관통한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동시대 현대미술의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 작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전시에는 경기도미술관 큐레이터들이 미술사적·예술사적 가치를 고려해 선정한 99점의 작품 중 전시 환경과 빈도를 기준으로 선별한 소장품 총 25점이 선보인다.

극사실적 기법으로 꽃, 문자 등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진 김홍주의 ‘무제’는 커다란 캔버스에 오로지 꽃 한 송이만을 정면으로 부각해 그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정의를 유도한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핑거 페인팅’으로 유명한 박영남 작가의 ‘하늘에 그려본 풍경’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미적 유희를 마음껏 표출하며 순수미술의 자유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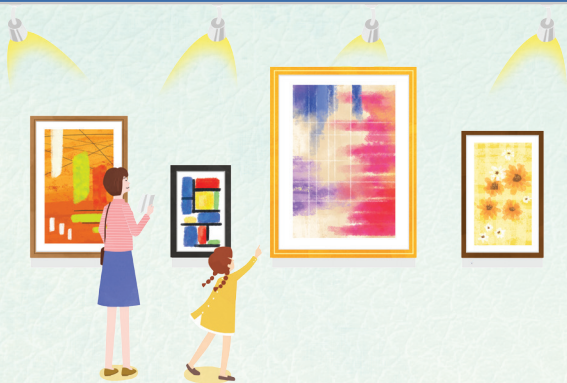
한국적 비디오아트 1세대 작가로 알려진 박현기의 ‘무제’는 폐침묵과 돌을 소재로 제작한 ‘나무 손’ 시리즈 중 하나다. 손가락 모양으로 갈라진 나무에 돌을 끼워 넣은 형태의 작품은 실제 작품을 둘러보고 있는 작가의 영상 모니터와 결합해 작품과 작가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해준의 ‘미군과 아버지’는 작가의 아버지가 1945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처음 본 미군에서부터 1959년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기까지 경험했던 미군의 이야기를 22장의 드로잉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특수한 조건에 맞물려있던 개인의 경험을 다룬 작업에서 망각된 지각의 주름이 퍼지듯 개인사와 가족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임민욱의 ‘포터블 키퍼’는 버려진 선풍기 팬과 깃털, 필기도구로 만든 ‘휴대용 지킴이’를 어깨에 메고 재래시장과 공사장을 홀로 배회하는 남자의 모습을 촬영한 작품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 문화자산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경기도미술관의 지난 12년을 보고하는 자리”라며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11월 25일까지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7)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

안산아트페어가 9월 19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다. 경기도 최대의 미술시장이다. 안산아트페어는 지난 2003년 자연미술협회(회장 김명산, 부회장 유미경) 소속 12명에 의해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당시 부회장이었으며 현재 운영위원인 유미경 작가를 만났다.

...

Q 자연주의미술협회 회원들이 추구하는 미술의 세계는?

자연의 순수함을 갈망하고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또 자연에서 받은 감동을 작품에 전이시켜 화폭에 담아 내어 관람자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에 의한 삼라만상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Q 세계 12개국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하고 전국유명작가 초대전, 안산고교 아트상품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계획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술계가 아시다시피 배고프다. 작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함으로써 구매자가 작품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되고 작품 소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작가와 소장자 간에 지속적인 유대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가치와 작가들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담고 있다.

Q 15회를 이어 전시하면서 기억에 남는 작가와 작품을 든다면?

10여 년 전 난시랭 작가가 ‘터부 요기니’라는 작품을 전시했는데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회에도 우수한 작가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TERVIEW

유미경 (안산아트페어 운영위원)



Q 향후 미술계가 경제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잠재적 능력을 발굴해내는 통로를 통하여 우수한 미술 인재를 키우고 그들이 세계시장의 리더가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과 함께 국내외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안산시민들께서 안산국제아트페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국제 페스티벌답게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문의 : 안산국제아트페어 사무국(031-485-0488)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2018년 가을, 미술로 물드는 안산
“이렇게 좋은 계절,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미술의 대향연”

바야흐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다. 문화예술은 시대가 더 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할수록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예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미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안산에서 올 가을 펼쳐지는 미술의 대향연에 대해 소개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

안산 대표 축제 ‘김홍도 축제’ 즐길 준비되셨나요? 그림이 살아 움직이고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축제 화랑유원지에서 내달 12~14일까지 열려

안산을 대표하는 가을축제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인 김홍도, 그의 고향 안산에서 그가 살아온 삶과 예술작품을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문화를 사랑하는 안산, 찾아오는 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시도다. 그림 속에서 살아온 인물들이 말을 걸고 옛 것과 새 것, 전통의 아름다움과 다문화의 아름다움이 소통하며 공존하는 색다른 축제가 준비 중이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김홍도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가 가득하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되는 '김홍도 축제' 미리 들여다 본다.

그림이 살아있네? 풍속화 속으로 풍덩~ 마당극, 마임으로 살아나는 풍속화

김홍도 축제의 가장 큰 자랑이며 자산은 바로 조선 최고의 화가 '김홍도'. 화선지를 뚫고 나와 살아 움직이는 풍속화 속 주인공 찾기는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재미다. 축제 준비위원회는 김홍도의 삶과 작품을 소재로 '김홍도 마당극'을 창작해 12일부터 14일까지 총 5회 공연한다. 올해의 주제 그림은 행려풍속도 중 하나인 '노상송사'다.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는 선비가 세속을 유람하며 마주치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풍경을 그린 장면이다. 그 중 '노상송사'는 가장 드라마틱한 그림이다. 행차를 하는 고을 수령앞에 두 명이 엎드려 시비를 가려 달라 청하고 수령은 타고가던 가마를 세우고 즉석에서 판결이 이뤄진다. 행차 일행과 구

경꾼들까지 더해져 시골벽적인 '노상송사'가 이뤄지는 그림. 김홍도 축제에서는 이 그림으로 마당극을 만들었다. 관객과 호흡하며 만들어낸 2018년 노상송사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밖에도 김홍도 풍속화첩 중 유명한 그림인 씨름작품이 마임공연으로 재탄생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조선시대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 풍속촌 체험마당, 체험하며 느끼는 역사

화랑유원지 안 나지막한 긴 담장으로 둘러싸인 메인 행사장 안 쪽에는 30여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을 김홍도가 활동했던 조선시대로 안내한다. 주막과 약방, 점괘, 포목점이 늘어선 장터마당과, 투호놀이, 고누놀이, 씨름, 제기차기 등 조선시대 놀이를 체험하는 놀이마당, 새끼꼬기, 떡매치기. 대장간, 벼타작을 체험할 수 있는 농업마당, 문방사우와 전통악기, 가마타기,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마당이 펼쳐진다.

전득준 김홍도축제 조직위원은 “김홍도의 그림 속에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담겨 있다. 그의 풍속화는 순식간에 그려내지만 현장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어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를 역사 속으로 데려가는 타임머신이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20회 단원미술제



기 간 2018. 10. 12.(금) - 11. 3.(토)
시 간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장 소 단원미술관 및 상상미술공장
관람료 무료

올해로 20회를 맞는 단원미술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미술공모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미술부문은 작품공모 방식을 벗어나 작가공모로 전환을 하며 공모 방식의 변화를 꾀해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서예문인화와 미술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서예문인화 부문은 지난 5월 25일부터 9일간 수상작 전시를 이미 진행했다. 미술부문은 현재 진행중이며 10월 12일부터 23일간 수상작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주년을 맞이하여 부대행사들도 풍성하게 열려 단원미술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역대수상작가 아트페어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지난 8월에 개최되었고, 단원미술제 20주년 기념 교류 화합의 밤이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10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두드림 어린이미술공모전도 진행중이며 아트워크숍등 예술가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단원절세보첩



기 간 상설전시 2018. 7. 10.(화) - 2019. 6. 30.(일)
시 간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장 소 단원미술관 3관
관람료 무료

단원미술관에서 선보이는 단원콘텐츠 전시 『단원절세보첩: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는 1796년에 단원 김홍도가 그린 병진년화첩 영인본 20점으로 모두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 화첩은 단원 김홍도 후기 산수화의 원숙한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으로 표지에 '단원절세보'라고 묵서

되어 있어 단원절세보첩이라고도 불려왔다. '折世(절세)'라는 말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용어지만, 흔히 쓰는 '絶世', 즉 '세상에 비교할 데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단원절세보첩은 "단원이 그린, 세상에 비길 데 없이 보배로운 화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화첩은 보물 782호로 단원 김홍도 만년의 대표작으로 산수인물화 11폭과 화조산수화 9폭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홍도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의 여러 주제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모두 높은 격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모두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재를 산수 배경 속에 그려넣은 것들인데, 그림에도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모습으로 승화시키고 있어 단원 김홍도의 한국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산수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됐다. 시립국악단과 동춘서커스가 축제 현장을 찾아 공연하고 줄타기·대북&삼고무 공연, 당나귀 체험, 열기구 체험이 참가자들의 엔돌핀을 책임진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거리 뿐만 아니라 도전 김홍도 골든벨, 김홍도 사생대회, 수공예품과 중고물품이 판매되는 프리마켓도 열린다. 안산을 대표한 축제에 성장해 갈 김홍도 축제. 그 첫 시작을 함께해 보자. 한복을 입고 참가한 시민에게는 푸짐한 경품도 제공하고 행사장에서 한복과 다문화 의상을 대여해 입을 수도 있다.

• 하혜경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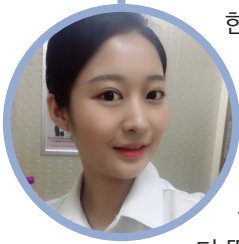
미니 인터뷰

다문화의상 체험코너 담당
문화세상 고리 백승희



김홍도 축제에서 ‘문화세상 고리’가 다문화 의상을 대여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치파오, 베트남 아오자이 일본의 유타카 등 각 나라마다 고유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는 15개 국가 전통의상을 40벌을 준비하고 행복예절관에서 한복을 준비해 체험코너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하루 선착순 400명만 가능하니 서둘러 행사장으로 오세요. 안산은 102개 국가 국민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도시입니다. 김홍도 축제가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홍도 도전 골든벨 참가자
한국호텔조리전문학교 최수빈 씨



한국호텔조리전문학교에서 국제 호텔관광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안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안산이 김홍도의 도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좀 더 뜻깊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도전 골든벨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했어요. 풍속화가인줄만 알았는데 공부를 할수록 참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골든벨 대회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푸드마켓에도 가보고 재밌게 놀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김홍도 사생대회 참가자
정재초등학교 3학년 김단아 양



미술학원에서 그림대회가 있다고 해서 참가 신청을 했어요. 이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단원미술관에 내 그림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전 화가가 꿈인데 대회에서 상을 받아 미술관에 제 그림이 걸리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릴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 ‘우물’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대로 따라 그리지 않고 요즘 사람이라면 어떻게 먹을까? 생각해서 재밌게 그려볼 거예요.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마셨지만 요즘 사람들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걸 그려볼 거예요.

안산환경미술협회
안산국제환경미술제

기간 2018. 10. 9.(화) - 10. 15.(월)
시간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1, 3, 4관
관람료 무료



안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환경미술제다. 12개국 14명의 해외작가와 국내작가 13명이 참여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해외작가는 베니스 비엔날레 등 세계의 우수한 비엔날레 출품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세계에 명성이 있는 작가로 주로 환경과 관련된 작가가 많다. 국내작가는 폐목재나 자투리 한복 천 등 다양한 창작물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정크아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안산민화협회
제7회 정기회원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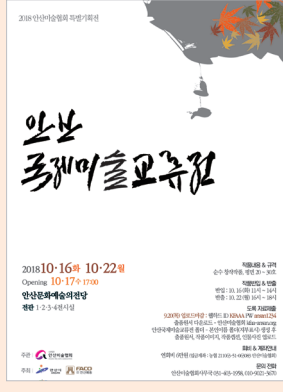
기간 2018. 10. 9.(화) - 10. 15.(월)
시간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2관
관람료 무료



민화는 주로 서민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그림으로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크게 유행했다. 한 시대 서민의 애환을 가감 없이 담았다는 점에서 그 어떤 그림보다도 민족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고 민화가 박물관에만 있는 죽은 그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문화 유산들이 박제된 채 옛 것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민화는 오늘날 활발하게 재창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민화협회 제7회 정기회원전은 이처럼 현대적인 민화의 아름다움을 탐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안산미술협회 특별기획
안산국제미술교류전

기간 2018. 10. 16.(금) - 10. 22.(월)
시간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전관
관람료 무료



안산미술협회는 2018 특별 기획 ‘안산국제미술교류전’을 10월 16일 개최한다. 중국 작가 20점, 일본 작가 10점, 베트남작가 10점, 경기 남부지역 미술협회회원 60점, 안산미술협회 회원 120점 등, 총 220점의 작품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오프닝 리셉션은 10월 17일 열린다. 중국과 베트남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양국 간 경제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문화 교류는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전시 작가와의 상호 소통 및 국제적 우호관계를 형성 하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로 당당한 지금이 좋아요” 페미니스트 정책토크쇼 ‘보이지 않는 여성노동’



지난 8월 27일 더플레이그라운드(단원구 고잔동)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 싸움의 언어를 찾아서’란 주제로 페미니스트 정책토크쇼가 열렸다. 안산여성노동자회와 안산의제21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크 패널로는 특수고용노동자 대표인 김은숙 ‘88cc’ 분회장, 청년여성 대표 경기안산청년유니온 김진영 씨, 가사노동자인 강순애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여성 정치인으로 나정숙 안산시의회원이 참여했다.

토크쇼는 여성이 구직 과정 등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김진영 씨는 “일단 여성의 경우 면접에서 대부분 결혼 및 출산 계획,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며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을 듣고 오면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닐까’ 중 일 그 질문을 생각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나정숙 의원은 여성들이 정치영역에 진입해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성 정치인은 정치를 직업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단기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선을 긋는 경향이 있다. 또 오랜 관행처럼 여겨진 술 문화나 언어 등 보이지 않는 배제의 문화가 존재해 여성 정치인이 동료로서 같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외감을 전했다.

10년 동안 가정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강순애 이사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가정관리사는 해고도 쉽고, 산재를 받을 수 없어 근무 중에 다치면 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며 “가사 일 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은숙 분회장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며 19년 전 처음 노동조합을 만든 후 두 번의 직장 폐쇄와 대량 해고를 겪어내며 오랜 투쟁 끝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게 된 경우다. “고객들이 공을 치다가 기분이 나쁘면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지만 회사에서는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다. ‘열심히 일해도 왜 이런 취급을 받나’ ‘한창 일할 나이에 왜 그만둬야 하나’ 그런 억울함이 누적됐는데, 노동자라는 인식으로 싸워오며 권리의식이 많이 강화된 거 같다.”며 “당당한 지금이 좋지 옛날로 돌아갈 순 없다. 노조활동을 하며 많이 당당해졌다.”고 했다.

관객들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50대 여성은 “계약직 여성으로 일하며 비슷한 상황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목소리를 내야 뭔가 바뀐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20대 학생은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며 80%쯤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김은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50%만 체념하고 50% 정도는 승리를 생각해보고 싶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 문의 : 안산여성노동자회(031-405-4362)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환경을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키워요"



9월 1일,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고생들이 화정천에서 ‘EM흙공’(EM은 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의미)을 던지며 수질정화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는 선부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을 모니터링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

이번에는 청운위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동아리 ‘음이온’을 결성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다. 음이온은 ‘음(EM), 이(이름다, 리), 온(온 세상을 깨끗하게)’의 줄임말로 ‘이로운 미생물로 온 세상을 깨끗하게’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휘림 학생(강서고2)은 “환경전문 강사님이 EM이 무엇인지, EM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EM을 활용해 천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인체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환경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EM흙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어요.”라며 힘껏 흙공을 던졌다.

EM은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등 환경에 이로운 미생물을 모아 배양한 것으로 항산화 기능이 우수해 수질 및 환경정화뿐만 아니라 아토피 등에도 좋다. 또, 합성세제의 세제 잔류량을 현저히 낮추거나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이어 물냉이, 미나리, 연꽃 씨앗을 넣고 버무린 흙공을 유숙이 느린 곳에 내려놓기도 했다. 씨앗폭탄 속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는 장소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박희수 위원장(강서고2)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리더십도 키우고, 중앙역에서 시민들에게 화정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협력을 배우고 있어요. 환경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보람있고요.”라며 이마의 땀을 닦았다.



박향신 환경강사는 “물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기도 하는 EM발효 흙공 1개당 3.3㎡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며 “신길 · 화정 · 반월 · 안산천 중에서 화정천은 수질 생태계가 가장 좋아 상류에는 말조개, 재첩 등 많은 생물들이 산다. 물잠자리, 미꾸라지에게도 집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생명체의 보금자리가 되는 화정천의 생태를 생각하며 집에서 물을 아껴 쓰면서 물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이제는 우리가 예술가다”... ‘웰컴 투 시민 예술시대’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 모여 끼와 재능 펼치는 축제의 공간

안산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웰컴 투 시민 예술시대’가 8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됐다. ‘이제는 우리가 예술가다’라는 주제였다. 동호인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쳐 안산시민들을 위로 하며 스스로활동을 즐기는 축제의 공간이었다.

이날 참가한 동호인 팀은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 24개 팀으로, 공연은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서는 ‘꽃물들이다 시화전’과 ‘상록사진동호회 사진전’도 함께 펼쳐졌다.

1부 공연에서는 안단테 & 스피런, 우쿨렐레 사랑, 라온제나 등 5개 동호회들이 그동안 갖고 닦아온 자신들의 끼를 맘껏 발산했다. 구경 나온 시민들도 공연팀의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날렸다.

이어 2부 행사로 국악소(good saxo) 색소폰 앙상블 & 한

양대오케스트라 안젤루스(ANGELUS), 루나밴드 & 통기타 그룹사운드 여섯 줄 등 16군데 동호회가 시간대 별로 공연을 펼쳐보였다.

동호회 안단테의 정홍배 회장은 “우리는 연극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모인 연극 동아리”라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연극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치유하면서, 그동안 배운 연극과 음악을 선보이게 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을 사랑하고 촬영을 즐겨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상록사진동호회(회장 김상훈)도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시민에게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훈 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전시를 하겠다.”며 “안산시민이 화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하게 되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작품을 감상한 고잔동



주민 B씨는 “사진이 꼭 그림 같다”면서 “동호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며 참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상록사진동호회는 올해로 13회 째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웰컴 투 시민 예술시대’는 올해 다섯 번째 열리는 행사로, 매년 여름철 안산문화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2)
김효경 기자_poet-hk@hanmail.net

대부도 포도밭에서 열린 ‘착한 음악회’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

사단법인 안산민예총은 9월 1일 대부도 유리섬박물관에서 ‘포도밭 착한 음악회’를 열었다. 이 음악회는 4년 전 한 농가의 포도밭에서 소박하게 시작해 이제는 유리섬 박물관 크기의 규모에서 해야 될 정도로 성장했다. 음악회 취지는 ‘언젠가 행복해질 미래를 위해 참지 말고, 지금 잘 쉬고 잘 놀며 문화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음악회 좌석도 취지에 맞춰 배치했다. 가족, 연인, 친구들이 서로 마주 앉아 정담을 나누고 큐브 스테이크와 와인을 마시며, 잘 익은 포도와 야경을 배경으로 재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호수동에서 온 한 주민은 “평소 재즈를 좋아해서 아기를 들

쳐 업고 따라왔는데 바다와 포도밭과 유리섬이 한데 어울려 눈이 풍성하고 귀가 행복하다.”며 만족해했다.

원곡동에서 온 주민도 “장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와보니 생각보다 수준 있는 음악회였다.”고 평가했다.

해양동에서 온 백인해(58세) 씨는 “첫해에도 우연히 관람하여 감동을 받았는데 4번째인 오늘 관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당시의 감동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남편, 아들, 며느리에게 권유했는데 와보고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 이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 안산 시민의 삶이 참시나마라도 풍요롭고 여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포도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는



데도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포도밭 착한 음악회’가 안산의 품격 있고 의미 있는 대표적인 문화놀이터로 꾸준히 성장하길 바라는 기대가 많다.

◇ 문의 : 안산민예총(031-413-5230)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더 좋은 민주주의, 시민 힘으로”

1기 안산 민주시민 아카데미 개강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1기 안산 민주시민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더 좋은 민주주의, 시민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9월 4일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개강했다.

아카데미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안산시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총 여섯 번의 강연과 한 번의 기행(10월 9일), 10월 26일·27일 1박 2일의 역량강화 워크숍,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는 ‘오픈스페이스 시민한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헌법인데 사실 일상 생활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 그 헌법을 시민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아카데미”라며 “관심 있는 안산 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일 개강된 아카데미는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의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시민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됐다. 이날 강연에는 40여 명의 안산 시민들이 참가했다.

김동춘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시민성’은 시민권에 대한 자각,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쟁취해서 누리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시민성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 교육이 필요한데 한국의 실정에서 학교 교육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참가자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민주주의나 헌법이 이런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새삼 느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며 “이후 헌법에 대해 더 자세한 강연이 이어진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아카데미는 상시 모집으로 안산 시민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문의는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로 하면 된다.

◇ 문의 :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031-485-9009)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좋은 친구 교류전’ 중앙동 소재 양숙갤러리에서 120여명 우정 나눠



고잔동 소재 양숙갤러리(루체웨딩홀 2층)에서 열린 ‘좋은 친구 교류전’에 초대된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과 어울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숙 화가 “수입금 전액 인도 학교 짓는데 사용할 터”

태양도 잠시 주춤하며 열기를 내려놓던 8월 26일 오후 6시 중앙동 소재 양숙갤러리(루체웨딩홀 2층)에서 ‘좋은 친구 교류전’이 열렸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초대,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초대돼 온 사람은 120여명으로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과 인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요르단 등 아시아 전역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장 노동자와

선교사, 목사,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등 다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교류전을 연 양숙 작가는 “안산은 다문화 가정도 많고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있는 특수 지역이어서 어렵게 사는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눈을 마주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경제적 도움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올해로 4번째로 ‘좋은 친구 교류전’을 연 양숙 작가는 꽃을 그리는 전문 화가로, 작품 주제는 ‘세계평화’다. 가난과 기아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 희망의 꽃을 통해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양 작가는 “안산에 머문 외국인들에게 내 그림을 보여주고, 그들이 쉽게 가보지 못한 갤러리라는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번 교류전의 막은 복음가수인 조계영 씨가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을 부르는 것으로 올랐고, 이어 한국무용가 박명자 씨의 부채춤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렸다. 관객들은 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열창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장성주 태권도 사범은(ITF태권도장 운영) “자선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외국 사람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 동참했다.”며 “외국인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연말에 자선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양숙 작가는 수입금 전액을 인도 학교를 짓는 곳에 후원할 계획이다. 소외된 외국인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며 행복해 하는 서양화가 양숙 작가의 미소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 문의 : 양숙갤러리(010-8937-0963) / 김효경 기자_poet-hk@hanmail.net

경기창작센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2018 경기창작페스티벌’ 개최… 작업실 ‘공개’, 다양한 ‘체험’ 가능



‘2018 경기창작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창작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과 작업 결과물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연중 최대 행사다.

올해 입주한 창작 작가 20명을 비롯해 창의교육·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 작가 18명 등 총38명 작가의 작업실이 공개된다.

경기창작센터는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입주 작가들은 물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화예술 관련 주요 언론인들이 함께 하는 ‘창작 만남’, 해외 작가들과의 ‘창작 워크숍’ 그리고 작가와 문화예술 전문가가 함께하는 ‘창작 아트 토크’ 등이다.

이와 함께 전시실에서는 ‘2018 경기창작페스티벌 기획전: 적막한 고요와 짙은 해무 사이’가 진행된다. 대부도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 현안들과 역사적 경험,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기억이나 개별적인 관점을 예술의 범주로 주목시킨다.

이밖에도 미디어의 실험적 작업을 보여주는 이지연 작가의 ‘비욘드 지(beyond Z)’와 베트남 초청작가인 레 브라더스(Le Brothers)의 ‘문드롭스(Moondrops)’를 비롯해 경기창작센터의 창의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작가들이 준비한 ‘교육전시: 상상공장 공장장’ 등이 전시된다.

경기창작센터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입주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국내 주요 언론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며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멋진 지역 축제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 문의 : 경기창작센터(032-890-4822) /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희망재단, ‘좋은아침 패스트리’에서 아름다운 봉사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잔칫날”… 판매금액 전액 기부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된다. 금 나와라 뚝딱” 매월 12일, 안산희망재단(이사장 이천환)이 ‘도깨비 잔칫날’을 여는 이유다. 안산희망재단은 상록구 장하동 ‘좋은아침 패스트리(대표 최세호)’와 손잡고 매월 12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기부행사를 갖고 있다. 지난 8월 처음으로 시작했다.

두 번째 행사인 ‘도깨비 잔칫날’은 그룹홈 청소년 자립을 위한 음악회도 마련했다. 가수 ‘논두렁 발두렁’이 시민과 함께 ‘다락방’을 부르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했다. 이날 판매된 빵 값은 전액 안산희망재단에 기부, 지역 그룹홈을 돕는데 사용한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는 아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안산희망재단은 그룹홈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지원, 금융관리(디딤씨앗통장), 공간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기부행사를 펼치고 있는 최세호 대표는 특히 판매금액 전부를 기부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 현재 ‘좋은아침 패스트리’는 전국 45곳에 체인점을 두고 있다. 최 대표는 “나누기를 잘 해야 성공한다”는 신념을 소개했다.

김효경 기자_poet-hk@hanmail.net



‘2018 안산 희망마라톤대회’… 전국에서 10,711명 참가

‘2018 안산 희망마라톤대회’가 9월 16일 오전 8시30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의 와~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안산시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안산을 비롯한 경기지역과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전북·전남·광주·경북·대구·경남 등 전국에서 여성 4천703명, 남성 6천8명 총 1만,711명이 참가해, 대회 가장 긴 코스인 하프코스(21.0975km) 618명, 10km 1천748명, 5km에 8천345명이 희망안고 가을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 희망마라톤대회가 주변의 관심 속에 어느덧 만 명이 넘게 참가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성장했다.”며 “이번 대회가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희망마라톤을 통해 시민께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희망과 행복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했다.

2018 안산희망마라톤대회 남녀 하프코스 우승은 문삼성(27·서울 금천구 혁명종합병원/기록 1시간13분05초) 씨와 이선영(41·안산시청마라톤/기록1시간28분26초) 씨가 차지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씩 15km이상 달린다는 문삼성 씨는 이번 대회가 “코스 높낮이도 괜찮고 지루함도 없어서 달리기엔 무척 좋았다.”며 “내년에도 또 안산 마라톤에 참가할 계획이며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모두 함께 부상 없는 즐거운 달리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마라톤을 시작한 이선영 씨도 일주일에 두세 번 넘게 15km를 달린다고 했다. 이선영 씨는 “달리기가 심신 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며 “살이 지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는데 마라톤을 시작하고 처음 1~2년 사이에 10kg 이상 살이 빠졌다.”며 “비만 예방에 달리기만한 게 없다.”고 했다.

남자 10km 단축코스에서는 최진수 씨(50·런닝마라톤)가 35분24초, 여자 10km 단축코스에서는 류승화 씨(41·수원 곡반정동)가 38분47초로 1위로 들어왔다. 남자 5km는 이지원 씨(49·수원 곡반정동)가 17분26초, 여자 5km는 오혜원 씨(49·군포시육상연맹)가 21분44초로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많은 안산시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대회 운영을 도왔고, 푸짐한 경품과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져 즐거움을 더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비빔밥과 미역냉국으로 먼 길을 달려온 건각들을 대접했고, 안지사(안산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회원들은 두부김치와 절편을 마련해 참가자들과 나눴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 캠페인 ‘빨간원 프로젝트’와 공동체치안활동 ‘우리동네 안심순찰’ 홍보활동을 펼쳤다.

◇ 문의 : 안산시체육회(031-482-282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제3회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성료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선정 기념…



안산시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0시 대부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선정’을 기념하여 진행된 ‘제3회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를 개최했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사)안산시관광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걷기축제는 대부해솔길 6코스와 바다향기수목원 일대 소나무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총 4.5km 구간으로 진행됐으며,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은 1천7백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자들은 넓게 펼쳐진 서해 갯벌, 해안가와 어우러진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 함께 참가한 한 시민은 “걷기코스 정상에서 서해바다와 동서남북으로 탁 트인 대부도의 아름다운 풍경은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과 힐링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해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라면서 “다음에도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고 바다 풍경 등 볼거리가 많은 대부도에 자주 놀러오겠다” 전했다.

걷기 행사를 마치고 냉장고·TV 등 다양한 경품 추첨과 대부 LIVE 버스킹 공연, 프리마켓, 대부포도 판매 및 시식, 느린우체통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서해의 붉은 노을을 자랑하며 따뜻한 마음과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우리 모두의 축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부해솔길 전 코스를 아름답게 단장하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해솔길은 지난 2016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서 경기·인천지역 1위로 뽑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대부도관광안내소를 시작으로 구봉도, 대부남동, 선감도, 탄도항을 거쳐 대송단지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74km, 7개 코스로 조성됐다.

◇ 문의 : 안산시관광협의회(1899-1720)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반월동, 반달마을 축제… “나는 반월에 산다”



반월동 반달마을축제추진위원회는 9월 15일 10시 반달공원에서 축제를 열었다. 올해 3회째로 ‘화합의 반월마당’, ‘놀자! 삼천리 마당’, ‘배워보자! 팔곡마당’, ‘느껴보자! 안골, 양지 마당’, ‘함께하자 창말 마당’, ‘먹자! 장터 마당’ 등 옛 지명을 테마로 진행됐다.

조남현 위원장은 축제 취지에 대해 “반달 알리자, 안산시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 만들자.”라고 소개하며, 반월의 화합과 단합을 의미하는 ‘단심줄’ 놀이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 참가한 이서연 학생(반월중1)과 친구들은 “반월동을 사랑해요, 건지미(건건동의 끝을 의미하는 지명)가 맘에 들어요, 떡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최고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온다는데 맘껏 즐기고 싶어요, 만약 다른 지역 친구들이 반월동으로 이사 온다고 하면 적극 권유할거예요”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천영순(반월동, 7세) 씨는 “아이들이 체험코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서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준비하신 분들의 수고가 느껴지고 화합의 장임을 알겠다. 반월동에 정착한지 30년,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주민들의 고운 심성에 늘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했다. 이경섭 동장은 “이 축제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실이니만큼 반월 주민들이 만족해 할 것이고, 이 축제를 통해 반월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리라 기대한다.”며 “시 관문에 위치해 있는데 약 97%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개발이 늦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월피동

달빛축제 2천여 명 참가 성료



월피동은 9월 8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시낭운동장에서 ‘제3회 달빛축제’를 개최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전시·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 불빛 조형물 포토존을 운영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그동안 연습해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전 행사로는 ‘K-뮤즈댄스’의 방송 댄스, 극단 ‘가우자리’의 청렴 연극, 안산시여성합창단의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부곡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과 가수 방시연, 레이저댄스 공연팀 ‘디스 이즈 잇’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행사장에 운집한 2천여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 A씨는 “월피동에 15년 동안 거주하면서 매회마다 축제에 오고 있는데 갈수록 풍성해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벌써부터 제4회 달빛축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팔 주민자치위원장은 “달 드는 언덕 월피동 달빛축제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손잡고 오셔서 즐기는 모습이 축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오3동

후원기금 마련위해 전통문양 방향제 제작



본오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후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복조리, 한복인형 등 전통문양 방향제 300여개를 손수 제작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의체 위원 20여명이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 회의에서부터 동대문시장 재료구입, 원단 재단, 물품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 한편, 복조리와 한복인형 등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살려 제작된 방향제와 소품은 15일 개최된 ‘2018년 상록수 문화제’ 행사장에서 판매했으며, 발생한 수익금은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겨울철 김장 나눔행사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협의체 위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정숙 본오3동장은 “협의체 위원들이 몸과 마음을 모아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곡동

추석맞이 ‘살맛나는 쌀나눔’행사 추진



부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추석맞이 ‘살맛나는 쌀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쌀나눔 후원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8개 직능단체와 부곡동에 소재한 사업체와 종교기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10kg 총 544포가 모금됐다. 부곡동에서는 1994년 개청이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쌀 나눔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9년부터 제일컨트리클럽과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계기로 후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지역사회의 나눔 실천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왔다. 강우승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쌀 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후원자의 마음이 차곡차곡 모여 많은 쌀이 모금됐다”고 말했다. 박병호 부곡동장은 “지역을 생각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 베풀어준 정성이 모여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가 될 것이다. 기부문화가 생활화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 받은 쌀은 경로당과 저소득층에 골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원곡동, 글로벌 공동체 ‘꼬치축제’ 성황



9월 15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글로벌 공동체 원곡동 꼬치축제’가 열렸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이 축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원곡동에 위치한 여러 음식점들이 다양한 꼬치구이 등 다문화 음식을 판매했다.

축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난타공연으로 시작돼 중국어 노래, 필리핀 대나무 춤 등의 다문화 공연과 웰빙댄스, 발리댄스, 생활영어팀의 팝송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시민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박수를 치며 호응했고, 다양한 꼬치구이를 맛보기도 했다.

강희덕 위원장은 “꼬치축제는 올해 처음이다. 원곡동을 다문화 관광특구로 키우려면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곳에 다문화 식당이 많다보니 떠오른 게 친근한 꼬치구이다. 내년부터는 주민 스스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축제를 통해 원곡동이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오늘 축제는 성공적이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만족해했다.

꼬치구이 판매부스로 참가한 김순애(안산거주 3년) 씨는 “시민들의 꼬치구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다. 많은 안산시민들이 축제를 찾아주면 좋겠다. 내년에도 축제가 열린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러 나라 고유 의상을 입고 민속놀이를 가르쳐주는 체험부스도 마련됐고 특히, 비누만들기를 배운 초등학생들이 직접 시민들을 도우며 진행된 천연비누 만들기가 인기를 끌었다. 신수연(원곡초5) 양은 “어른들이나 친구들에게 비누 만들기를 알려주니까 뿌듯하다. 축제도 즐겁고 무엇보다 함께하니 기쁘다”고 했다. 김지윤(원곡초3) 양도 “여러 시간 서있어서 힘들지만 앞으로도 축제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축제를 즐기러 온 윤연화(안산거주 13년)씨는 “매년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같은 안산시민이다. 이곳에서 같이 즐기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박미영_uzuin70@naver.com

신길동 주민자치센터 발리댄스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대상 수상



신길동 주민자치센터 아동발리팀 ‘블랙&화이트’가 9월 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18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24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블랙&화이트’는 모연해 강사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발리댄스팀으로 이번 대회에서 드럼과 솔로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아리랑과 타블라 전통음악의 조화를 통해 고요하면서 신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김정호 위원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열 동장은 “동 청사가 없는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우승을 차지하여 무척 기쁘다. 이를 통해 신길동을 알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승으로 ‘블랙&화이트’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대회에 안산을 대표해 출전할 수 있다.

중앙동 제3회 태봉예술축제 성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공8단지 바 상가 앞에서 ‘태봉예술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예전과 달리 바 상가 앞 도로를 통제해 행사장을 만들어 2천여 명의 주민이 보다 가까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배운 종이접기와 캘리그래피, 생활도자기, 섬유아트 등의 작품들이 전시됐으며, 중앙동에 위치한 서울예대, 중앙초, 덕성초 학생들의 공연과 영화극장 ‘난타’, 태권도 격파 시범 등의 공연이 더해졌다. 주민 A씨는 “20년이 넘게 살았어도 차도를 막고 하는 행사는 처음이었다”며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도 많고 수준 높은 공연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명희 위원장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차량통제를 담당한 자율방범대와 먹거리를 책임진 새마을협의회 등 단체 회원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영국 동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중앙동의 축제를 넘어선 안산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잔동

마을정원에서 만나는 ‘마을살이’ 거리극



9월 6일 고잔동에 특별한 손님들이 왔다. 제1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이하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조성된 소생길 정원과 마을정원, 고잔동 곳곳에서 펼쳐진 마을살이 거리극을 보기 위해 충남 보령의 마을 활동가들이 방문한 것.

‘지난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 만들어진 고잔동 정원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정원문화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충남 보령에서 온 활동가들은 고잔동 마을정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생길 정원과 마을정원을 꾸민 연립단지로 옮겨 마을살이 거리극을 관람하며 고잔동이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또한 고잔문화복지센터 ‘심과함’에서 협동조합 ‘굿빌리지’가 준비한 슬로푸드를 이용한 건강먹거리도 체험했다.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의 조미숙 간사는 “고잔동 마을정원은 여행상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주민 스스로 동참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의 이 여행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마을여행 상품의 기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_uzuin70@naver.com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아기사진(또는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이름 · 생년월일 · 성별, 부모이름, 주소, 연락처, 태명, 태몽, 사연(탄생이야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5만원)를 드립니다. (대상 :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후 ~ 24개월즈음 아이를 둔 출산 가정) ※ 나비잠 :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



탄생이야기: 낳기 이틀 전이 제 생일로 동대문 순화를 하고 왔는데~~ 새벽부터 허리리 진통이 시작~ 허리가 아픈 건 진통이 아닌 줄 알고 계속 참고 참고~ 아프다 말다 하는 것이 더는 안 될 것 같아 아픈 주기 체크하고 병원으로 갔네요~~ 아가가 안 내려와서 짐볼 들고 운

아기이름: 송호준 출생년월: 2016. 8월 태명: 똥강이

태몽: 큰호랑이가 제(엄마) 어깨를 물었어요 그런데 무섭다 보다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동도 했지만~ 힘주고 10분 만에 낳았어요~

초음파에서 본 것처럼 역시 머리 작고 다리가 길어 엄마를 도와줬나 봐요~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바라는 것): 돌잡이 할 때 연필을 잡은 것처럼~ 네가 쓰고 싶은 것들 많이 해보고~ 또 그리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해보렴. 꼭 공부가 다는 아니란다 ♡ 지금처럼 건강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엄마 아빠가 함께 지은 이름의 의미처럼 재주 많고 슬기롭게 잘 자라주렴~~^^

아이를 키우며 있었던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 보육교사로 호준이와 같은 만 1세 반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데 일하

며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 아기의 애교를 보며 힐링하고 있어요~ 엄마가 힘들면 와서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 토닥해주는데~ 그게 힘들었던 것들을 그냥 다 잊게 해주네요.♡♡

출산 장려 한마디: 아이로 인해 얻은 기쁨이 신랑이랑 '콩냥콩냥' 하던 연애시절을 뒤집을 만큼 커서 아이에게 항상 감사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중이네요~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지만 또 아이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 시대의 엄마아빠 파이팅!!!



아기이름: 이은우 출생년월: 2018. 6월

태명: 안산 장군님

태몽: 천사들이 안산시를 날아다니는 꿈

고결함과 영롱함 속에서 태어난 안산의 사나이입니다. 멋진 고장에서 태어난 것도 영광이고 '살맛나는 생생도시'에서 꿈과 희망이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들이 될 거예요.

우리 안산시는 녹지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예술도시로, 늘 푸른 생각으로 늘 푸르게 뛰어노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무럭무럭 성장하여 새로운 장군님으로 성장하기를 바랄게요, 어제 갓난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웅얼이를 하는 모습이나, 매일매일 잘 먹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커 나가는 모습이 신비하기만 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귀여워하는 모습은 나의 큰 행복이며 나의 큰 사랑입니다.

은우님 파이팅!



아기이름: 전서훈

출생년월: 2017. 2월

태명: 짱짱이 태몽: 사마귀

결혼 후, 우리 부부에게 바로 찾아온 행복, 우리 서훈이!

뱃속에 품고 있던 열 달 내내 얼마나 행복하던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그 행복이 두 배 세 배~ 초보 엄마아빠로서 서툴고 힘들긴 했지만, 하루하루 건강하게 커가는 서훈이를 보면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서훈이가 이제 어느덧 18개월이 되어 엄마아빠 말도 조금씩 알아듣고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네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뿌듯하던지. 저희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부모가 되어보야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사랑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 가족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훈아, 아빠엄마가 많이 사랑해!



아기이름: 전다은 출생년월: 2017. 3월

태명: 뽀꼬

태몽: 외할머니가 은빛 커다란 물고기를 잡는 꿈

워킹맘이라 외할머니가 독박육아를 하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내며 매일 이야기해서 인지 외할머니 껌딱지예요. 자다가도 할머니만 찾는답니다. 덕분에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산소포화도가 낮아 니큐(nicu, 신생아중환자실)에 5일동안 입원했었는데, 그때 심실중격결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간 정기검진을 다니면서 맘 졸였었는데, 지난 검진 때 수술은 안 해도 되겠다며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막히길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정기검진을 몇 번 더 가야겠지만 지금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은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다은아, 늘 고맙고 사랑해♡



독자
투고

노적봉의 가을

숲 향기가 흐르는 노적봉
단원 미술관을 지나서
안산 호수공원 주변까지
햇살 휘저으며 들려오는
가을 바람소리

공원길 아래 장미꽃 화단들
연초록은 왼쪽으로 비껴가고
메마른 가을빛만 익어 내린다.

전철 지나가는 한양대 주변
언덕에 고추잠자리 춤을 추고
두툼한 햇살은 피어오른다.

노적봉은 언제나 고즈넉한
산책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쫓고 묶는 곳

오늘도 숲가에 흐르는 노적봉
생생도시 안산시
온 천지에 환하게 불을 밝힌다.

• 이문기(상록구 성포동)

독자
투고

비울수록 더 채워지는 기쁨

‘육아는 장비발’이라는 말처럼, 조금만 검색해 봐도 육아에 꼭 필요할 거 같은 편리한 육아용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나는 수시로 육아용품을 구매했고, 거의 매일같이 오는 택배 상자가 일상인 삶이었다. 편리하지만 점점 넘쳐나는 육아용품들로 하루 종일 치우고 정리하느라 지쳐가고 있을 무렵, 우연히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방식)’에 대한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일상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동안 넘쳐나는 장난감이라든 아이 옷들을 정리하느라 어떤 수납장을 더 사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정리해 비워낼 것인가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다. 비워가자니 처음에는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상 버리자니 아까워서 며칠 동안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많았다. 그런데 여러 번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비워나가니 이상하게 내 삶도 뭔가 정리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하나하나 비워짐에 뿌듯함과 기쁨이 더욱 커졌다. 그리고 비운다는 마음으로 막상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 사놓고 안 쓰고 있는 물건들, 집 안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물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도 되었다.

이제는 온갖 육아용품들과 안 쓰는 물건들로 포화 상태였던 우리 집도 버릴 것 버리고 나눠줄 거 나눠준, 어느 정도 여백이 존재하는 집으로 변화되었고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졌다는 말처럼 더 이상 치워야 할 스트레스가 가득한 집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집이 되었다. 이제는 비워진 가벼운 마음으로 두 아이들과의 행복한 경험을 쌓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거 같다. 선선한 가을 ‘비울수록 더 채워지는 기쁨’을 위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 조영숙(상록구 사동)

마을에서 즐기는 특별한 ‘가족숲캠핑’

밧줄놀이, 생태체험으로 ‘제대로’ 경험하는 숲

녹음이 짙은 숲에 모인 가족들 얼굴에는 설렘이 묻어났다. 숲속에서 보내는 하룻밤은 어떤 느낌일까. 아이들은 좁은 실내를 벗어나 햇살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이웃들과 둘러앉아 여유롭게 담소를 나눴다. 텐트 안으로 선선한 초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풀벌레와 산새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지난 9월 8일 사동 휴암산에서 열린 ‘가족숲캠핑’은 너무 가까워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동네 숲을 1박 2일 동안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감골 문화마을 사업의 하나로 안산문화재단과 감골주민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4인용 텐트와 음식이 제공돼 캠핑이 부담스러웠던 가족들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첫째 날에는 밧줄을 이용한 다양한 공동체 놀이를 한 후 영화를 감상했고, 둘째 날 오전에는 곤충과 식물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숲을 산책했다.

김진섭 강사가 진행한 밧줄놀이를 참여자들이 가장 즐거워했다. 특별한 매듭 법을 배운 아빠들이 나무에 밧줄을 묶어 만든 다양한 놀이기구는 아이들 눈에도 제법 근사했다. 아이들은 매듭의 탄성으로 흔들거리는 정글짐과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보고, 해먹과 그네에 앉아 잠시나마 타잔처럼 숲을 날았다. 둥그렇게 모여 서로 끈을 연결해 밖으로 당기는 공동체 놀이는 참여자들이 힘을 합쳐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을 하늘로 높이 올려주는 활동이었다. 스릴을 제대로 만끽하던 아이들은 하늘로 몸이 뜰 때마다 웃음을 터뜨렸고, 줄을 함께 잡아당기던 어른들도 힘든지 모른 채 아이들과 즐겼다.

휴암산을 걸으며 숲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과 식물을 관찰할 땐 동네 숲 생태계에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나무에 거미줄을 친 무당거미 암컷과 수컷의 사연을 듣고, 루페(확대경)로 가시거미 몸에 난 가시를 관찰할 땐 아이들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자리공



열매로 페이스페인팅도 해보고 강아지풀로 토끼 모양도 만들며, 자연물을 찾아 빙고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나갔다.

어린 아들과 함께 캠핑에 참여한 양희원 씨는 “아이가 밧줄놀이를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 캠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좋은 기회가 돼서 동네 분들도 한 분씩 알게 되고 얼굴 익힐 수 있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일곱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긴 강효주 씨는 “저희 모임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다른 어린아이들과 연령대가 안맞을까봐 걱정했는데, 산도 재미있게 다녀오고 풋살장에서 원 없이 축구도 해볼 수 있어 좋았다.”며, “다음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까운 도시 숲에서 경험했던 가족 캠프는 화창한 초가을 날씨만큼 익숙하지만 평온한 행복을 선사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두 공짜로 주어진다’는 숲의 속삭임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던 시간이었다.

◇ 문의 : 감골주민회(031-408-7601) /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안산그리너스, 축구도 보고 봉사시간도 받고 '일석이조'

백승민
(원곡중학교)

지난 2016년 창단된 축구팀 안산그리너스FC의 경기 관람은 안산시민들의 주말 예능이 되었다. 창단 이후 지금까지 안산의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재미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첫째, 중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다. 마땅히 봉사할 곳이 없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산그리너스의 경우 2주 또는 1주에 한 번씩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홈구장인 와~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한 후 관중석 등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봉사시간을 2

시간이나 받을 수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석이조'로 불린다. 원곡중학교 김다운(가명) 학생은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는 축구 경기도 보고 봉사 시간도 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올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 원곡중의 황희정(가명) 학생도 "처음에는 사실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냥 봉사시간 채우면서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요즘에는 축구경기가 점점 재밌어서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코넬(FW)선수가 정말 맛있는 거 같아



요."라며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온 가족과 함께 축구경기장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역사적으로 중요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대부 광산 퇴적암층'



전성호
(양지중학교)

안산에는 여러 문화재들이 있다. 그중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름답고 멋진 곳이 있다. 바로

'대부 광산 퇴적암층'이다. 대부 광산 퇴적암층은 대부도 탄도섬 인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 1990년 암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초식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된 곳이다. 이 발자국은 약 7000만 년 전의 것으로, 이후에도 동·식물 화석 20여 점이 추가로 발견돼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됐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초식공룡의 서식지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 광산 퇴적암층'으로 가는 길은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조금은 험난한 편이다. 일단 퇴적암층 입구까지 도달하기 위해 약 5분여 동안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가는 길에는 나뭇가지나 풀도 많아 조심해야 한다. 양지중 2학년 박수현 학생은 "가는 길이 좀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좋았고 안산에 이런 멋진 퇴적암층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라고 했다. '대부 광산 퇴적암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도 있어서 가족이 나들이하기 좋은 장소이다. 이에 안산시는 이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이후 정비가 끝난 후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달 전망대에 올라 조력발전 배우고 멋진 바다도 '조망'

정하음
(해양중학교)

여름도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행본능이 발동한다. 도심을 벗어나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대와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안산에 있다. 시화방조제 시화나래 휴게소에 있는 조력문화관과 달 전망대가 바로 그곳이다. 먼저 조력문화관은 조력발전소가 전기를 얻는 방법과 그 양, 달, 물, 에너지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다. 조력발전소는 밀물과 썰물이 이동하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고 인구 50만 명이 쓰는 전기의 양을 발전한다. 또, 석탄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조수간만의 차라는 자

연에너지에서 전기를 얻기 때문에 연간 31만5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시킨다. 조력문화관 전시관은 시화호 역사존, 달의 선물존, 조력발전존, 청정 에너지존으로 구성되어 으며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조력문화관 옆에 위치한 달 전망대는 10인승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높이까지 올라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단 한 개뿐이므로 사람이 많다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전망대에서는 시화호와 서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전망대 북쪽으로는 시화방조제가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조력발전소를 볼 수 있다. 남쪽으로는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스카이 워크가 있고, 신발을 벗고 다녀야 한다. 관람객들은 스카이 워크를 걸으며 스릴을 만끽하기도 하고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을 즐기기도 한다.



전망대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달의 인력(引力) 때문에 발생하고 그 힘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달 전망대'로 이름 붙여졌다. 입장료는 무료며 관람시간은 전시관(9:30~17:30) 전망대(10:00~22:00)이다.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 성곡반려견놀이터 등 방문… 예산 타당성 검증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안산성곡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시 관계자로부터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위원들의 모습이다.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환)가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9월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성곡반려견놀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적환장 농산물폐기물 감량화 시설이 노후돼 악취 발생 및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시설을 부분 교체하고 탈취제 분무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됐

으며, 반려견 놀이터는 효율적 운영과 안전 관리를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됐다.

예결위원들은 7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서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생선과 야채 찌꺼기 등이 풍기는 악취의 정도를 직접 확인했다. 또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와 향후 시설 도입 시 운영상의 문제점 진단에 주력하기도 했다. 이어 10일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서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될 장소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놀이터 운동장, 펜스, 음수시설 등의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시 관계자로부터 외곽지역에 놀이터가 설치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차례에 걸친 현장활동을 마무리한 예결위는 앞서 5일부터 심의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11일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환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예산이 많아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과 합심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산도시공사 · 안산도시개발(주) 방문… 업무보고 및 현안 청취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가 8월 31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안산도시개발(주)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양 기관의 업무보고와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방문한 안산도시공사에서 기획위 위원들은 공사 측이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하모니콜’의 운영 방식을 보다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과 하모니콜 사업 확대에 앞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설 관리 업무 외에 시민들이 공사의 개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체육관 이용료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안산도시개발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올해 8만여호에 대한 열공급을 달성하면서 열공급 10만호라는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실현하고 있는 부분을 높게 평가



기획행정위원회가 8월 31일 안산도시공사를 방문했다.

하고, 개발 측이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열요금 감면 등의 사회 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유망 신사업 발굴과 부채 관리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주미희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부터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이날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현장에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생생한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남은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 & 도시환경위

행복예절관 · 정수장 등 방문… 예산 반영 타당성 및 현장 상황 파악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와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가 제250회 임시회 안건들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3일에는 상임위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각각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안산시행복예절관과 전통가옥 청문당 · 경성당, 청년 창업공간인 ‘씨네프 안산’을 잇달아 찾아 현장 상황과 관련 사업비 등의 추경예산안 계상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했다. 행복예절관을 방문해서는 우리 고유의 예절 교육장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한 뒤, 예절관 측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예절문화 체험 교육 활성화 사업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파악했다.

에 따른 토지 매입의 타당성과 노후된 시설 상태를 확인했으며, 두 유적지를 연계한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에도 의견을 나눴다.

씨네프 안산에서는 영화관을 리모델링해 각 관별로 특색 있는 창업공간을 조성한 이 시설의 내부를 둘러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분야별 전문 멘토단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도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공사 현장과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 현장 등 2곳을 방문해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개선점을 파악하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안산정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시범 운영 중인 선부광장 일대를 방문해서는 광장에 식재된 나무들로 인해 주행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주행 차량 간의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 폭에 비해 회전주행차로의 수가 적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의를 보였다.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 9.14. ⇨ KBS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생생도시 안산 여행'
9.04. ⇨ KBS 2TV 생생정보 '일몰이 아름다운 안산 "함께 가을여행 떠나보실까요?"'
8.14. ⇨ MBC 생방송 오늘저녁 '수도권의 하와이 안산으로 떠나는 여름여행~'

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안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중 9. 23.(일) 부터 9. 24.(월) 까지 2일간은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연휴 기간 중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2259)

2018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

- ◇ 기간 : 2018.9.20.~10.19.
◇ 방법 :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전화, 팩스
◇ 내용 : 시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등
◇ 문의 : 안산시 의회사무국
(031-481-2517)(FAX.031-481-3227)

안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공모기간 : 2018.9.3.~10.21. [49일간]
◇ 내용 : 시민 생활 및 안전·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개선 필요한 규제
◇ 응모대상 : 안산시민, 안산시 소재 기업 및 단체, 안산시 소속 공무원

- ◇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rbwp2059@korea.kr)
◇ 시상내역 : 시장표창 및 포상금 수여
◇ 문의 : 안산시 예산법무과(031-481-2059)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모집

- ◇ 모집인원 : 100명(초·중·고·대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각 20명)
◇ 모집기간 : 2018.9.5.~10.26.
◇ 활동기간 : 2018.12.1.~2019.12.31.
◇ 역할 : 시정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한 기사작성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적합한 콘텐츠 생산
◇ 접수방법 : 이메일(ktg310@korea.kr)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2039, 3759)

페이스북 이벤트! 나만의 9경

- ◇ 응모기간 : 2018.9.20.~10.19.
◇ 선정인원 : 20명
◇ 주제 : 안산의 명소, 풍경, 인물(안산시 배경) 등
◇ 참여방법 :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안산 관련 관광명소 또는 포토존 등 개인이 찍은 사진을 '나만의 안산 9경'이라는 테마로 응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allae0204@korea.kr)
◇ 당첨자 발표 : 2018. 10. 31.(수)
◇ 이벤트 경품 : 나만의 안산9경(응모사진 9장) 엽서 제작, 문화상품권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2039, 3759)

2018 경기건축문화제



- ◇ 일시 : 2018.10.5.~10.7. 11시~18시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내용 : 전시·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등
◇ 문의 : 경기건축문화제
(031-269-6131/www.gaf.or.kr)

책 읽는 안산 / 10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나만의 글쓰기를 도와주는 책』

아동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

저자 이오덕 / 출판사 양철북

이오덕의 '어린이시'에 대한 고민과 성찰, 이론과 실천이 집약된 책이다. 어른들이 쓰는 동시와 어린이들이 쓰는 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다양한 작품을 보기글로 들어 어린이시 지도 방법을 다루고 있다. 실제 아이들과 함께 시를 쓸 때 어떤 작품을 보여 주고 어떤 말을 들려주어야 하는지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오롯이 담아 냈다. '어린이시'는 어린이 자신의 삶이다. 어린이가 자기 삶을 자기 말로 노래한 시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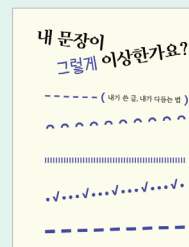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8년 동안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은 저자 강원국은 이 책에서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글쓰기 비법을 40가지로 정리한다. '독자와 교감하라', '메모하라', '제목을 붙여라', '애드리브도 방법이다' 등의 글쓰기 방법을 저자가 겪은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함께 제시한다.

성인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저자 김정선 / 출판사 유유

어색한 문장을 살짝만 다듬어도 글이 훨씬 보기 좋고 우리말다운 문장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다. 20년 넘도록 단행본 교정 교열 작업을 해 온 저자 김정선이 그 비결을 공개한다. 저자는 자신이 오래도록 작업해 온 술한 원고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어색한 문장의 전형을 추려서 뽑고, 문장을 이상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간추린 후 어떻게 문장을 다듬어야 유려한 문장이 되는지 요령 있게 정리해 냈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휘영청 보름달이 뜬 밤

한가위 음력 8월 15일

가을의 한가운데, 한가위입니다.
친구·친척 오순도순 모여
몸도 마음도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